

혈액투석 환자에서 대장정결제 복용 후 발생한 에스상결장 염전증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장은철 · 김길선 · 윤나리 · 최정란 · 김영수 · 윤선애 · 김영옥 · 김용수 · 장윤식

서론 : 에스상결장 염전은 장의 장축을 중심으로 장의 일부가 회전하여 발생하며, 부분적 또는 완전한 장폐쇄를 유발하여 응급처치를 요하는 질환이다. 주로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대장폐쇄의 흔한 원인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장폐색증의 1-4%를 차지하는 드문 질환으로 보고되고 있다. 저자들은 최근에 혈액투석 환자에서 대장 정결제 복용 후 에스상 결장 염전이 발생하여 에스상결장 절제술과 항문조성술을 시행한 매우 드문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2년 전부터 고혈압성 말기 신전증으로 혈액투석을 시행 받고 있었으며 77세 남자가 대장내시경 위해 대장정결제 4 L을 복용 후 지속적인 복통과 복부 팽만을 주소로 입원하였다. 내원시 활력징후는 혈압 150/90 mmHg, 맥박 88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7.6°C이었다. 복부 촉진시에 복부 전반에 걸친 팽만과 압통 및 경직이 있었다. 말초혈액 검사에서 WBC 3,400/mm³ (Seg 85.5%), Hb 8.0 g/dL, Hct 24.2%, PLT 131,000/mm³이었다. 혈청생화학 검사에서 BUN 42.6 mg/dL, Cr 4.87 mg/dL, Na 144 mEq/L, K 3.2 mEq/L, Cl 98 mEq/L, AST 22 IU/L, ALT 8 IU/L, Amylase 36 U/L, TP 4.5 g/dL, Alb 2.5 g/dL, Ca 6.7 mg/dL, P 4.5 mg/dL,이었다. 단순 복부 촬영에서 뒤집어진 U자 형태의 심하게 팽창된 대장의 공기 음영이 있었고 직장에는 공기 음영이 없었다. 복부전산단층촬영에서 에스상 결장의 장벽이 두드러지게 두껍고 부종과 심한 팽창이 있었으며 다량의 복수가 관찰되었다. 직장 에스상결장경에서 에스상 결장이 좁아지고 점막 주름이 시계방향으로 뒤틀려 있는 대장 폐쇄가 있었으나 감압술시행은 실패하여 응급개복수술로 에스상결장 절제술과 항문조성술을 시행하였다.

결론 : 대장내시경 전처치 과정에서 만성신부전, 만성변비, 심혈관질환 등의 에스상결장 염전의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급성복통 및 복부팽만을 호소하면 에스상결장 염전에 대해서도 고려해보아야겠다.